

<隨想>

人 間 的 慾 望

安 文 圭



入春이 지났으니 봄 빛은 문턱에 들어섰으며 한 많은 겨울 동안에 萬物은 冬眠을 지내고 再生하는 季節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은 天地의 變遷이며 自然의 攝理인 것이다. 봄이 오면 땅속 깊이 묻혀 있던 植物의 씨앗도 움트기 始作하며, 깊은 洞窟속에서 잠자고 있던 動物들도 활개를 치기 始作하는 것이다. 벌써 남쪽에서는 봄 消息이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季節에 있어서 萬物의 靈長인 人間도 또한 새로운 Idea로서 活動할 때이다. 특히 大陸性 氣候로서 活動에 制限을 받다가 날씨가 따뜻하여 짐에 따라 하고 싶은 行動에 本格的으로 行하는 이때에 出退勤時間에는 콩나물 심었듯이 뻑뻑히 들어찬 비스속의 사람들이 줄음에 잠겨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人間生活에서 그 만큼 人間의 能力 以上の 힘든 일을 한다는 結果이며 後進國이라는 宿命된 環境에 놓여 있는 現實인 것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 처럼 重要的 것은 없다. 또한 사는 方法도 千態萬象으로서 이 世上의 幸福보다도 後世의 永遠한 幸福을 善導하는 宗教人이 있는가 하면, 患者들이 많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病院의 醫師와 營業者들이 있다. 農業, 商業工業, 鑛業에서 부터 公務員이나 政治人들에 까지 그 生活狀態를 보면 人間의 삶도 가지각색인 것이다.

「세익스피어」는 처음부터 위대한 劇作家가 되기를 願한 사람은 아니었다. 또 그가 作品하나, 하나에, 특히 속세에 빛을 남길 것을 念頭에 두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몹시 힘을 들인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그의 대부분의 作品은 빵과 버터와 흑

은 그밖의 “生活相의 經費”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勿論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計劃하고 努力한 끝에 위대한 業績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일이란 恒常 生活과 먼저 連結되어 있는 법이다. 처음부터 너무 먼테를 바라보고 무리한 걸음으로 自己自身을 改造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은 自己 能力에 忠實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自身을 發見하는 길이다. 처음부터 위대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커다란 精神的인 負擔을 짊어지고 그 結果는 自己嫌惡에 빠지기 쉽다. 먼저 生活에 忠實하라! 그 속에서 自己의 힘이 發見될 것이다.」라고 <로렌스·골드>는 말하였다. 즉 모든 人間의 行動을 經濟的인 生活相과 連結이 되며 人間의 慾望도 또한 같은 것이다.

人間의 慾望은 끝이 없다고 한다. 그 慾望은 타고 나면서 부터 생긴 本能이며,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갖고면 셋을 가지고 싶은 것이다. 그것은 金慾, 權慾, 食慾, 性慾, 名譽慾 등으로 나누어 지며 人間에 따라서 그 慾望의 對象은 各各 다르다. 사람의 慾望이 끝이 없다 해서 自己 自身과 自己 주위의 環境에는 關係 없이 바라는 慾望은 不合理的인 慾望이다. 農民들이 都市의 社長을 願할리 없고 牧師나 神父가 藝術家가 되기를 願하지 않을 것이며, 勞動者들이 大甲富가 되기를 願하지 않는 것은 一般的인 事實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自己에게 주어진 切實한 環境에 依해서 自身과 동떨어진 생각은 할 수가 없고 또 생각 안 하기 때문이다. 허지만 요즘 識者라고 自負하는 사람들을 보면 社會生活에 있어서 「내가 꼭 해야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자리이고 또한 일이다.」 하면서 第三者가 보면 어리석고 어린애 작난 같은 行動을 하며 싸우

는 것을 볼때 그러한 人間은 慾望에 對한 큰 誤謬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慾望이 理想化되어 現實化될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慾望이 慾望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慾望이 아니고 하나의 허무한 꿈에 지나지 않으며 空想인 것이다.

꿈과 理想을 갖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正常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慾望을 갖는다는 것은 잘 살며 또한 참된 生活을 하기 위한 것이리라. 人間이 바라는 慾望이 모두 現實化되어 잘 산다고 할 때 그 社會는 複雜한 社會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勞動者와 賤한 職業은 안 할 것이니 人間 本能의 慾求에 制限을 받을 것이며, 모든 것을 自己 自身이 해야 하니 그 社會는 不合理的 社會가 될 것이다. 그러한 社會는 現在 世界 어느 곳이나 없지만 未來에 있어서 모든 生活構造가 自動化된다고 해

도 그러한 社會가 되기에는 不可能 할 것이다. 즉 造物主가 이 世上에 있어서 人間에게 自由를 주었고 또 人間의 생각, 慾望, 行動에는 人間의 自由이기 때문에 人間에 따라 善의 行動과 惡의 行動이 나타나며, 惡의 行動에는 結局 벌을 받고 그만큼 生活行動에 制裁를 받아야 하니 人間의 社會는 끝없이 貧富로서 社會가 構成되리라 믿는다. 더욱더 自己의 能力에 依해서 삶의 形態가 주어지는 現今에 있어서 自己 自身에 依해서 行動이나 態度가 決定되니 잘 못된 結果는 곧 自身의 過誤의 原因이다.

人間은 慾望과 끝 없이 싸우며 또한 그것은 現實化되기 위한 里程表인 것이다. 「人間의 慾望이란 限界가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리고 限定된 慾望이어야 眞正한 慾望이며 現實化될 수 있는 理想의 慾望이 되며, 理想化된 慾望은 누구나 現實化시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本會>

인 생 예 찬

픈술 곡조로 나에게 말하질 랑은 말라

인생의 공허한 꿈일뿐이라고!

잠든자의 영혼은 죽어버린 것이며

만물은 보기와는 딴 판이라고 해서

인생은 참되다! 인생은 엄숙하다!

더우기 무덤이 재갈곳이 아니다.

영혼이 없었던들

너희는 먼지의 신세, 먼지로 돌아갈 것을

우리들의 숙명적인 목적이나 갈길은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려니

다만 오늘보다 나아가는 우리들 자신을

내일 바다에서 찾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일 뿐

예술은 길고 세월은 덧없이

우리의 실장 곧세고 어엿하다지만

소리죽인 북마냥 언젠나 뚝뚝거리는

무덤에의 장송행진곡이란다.

세상이라는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지에서

말 못하고 쫓기는 마소가 되지말고 싸움하는 영웅이 되라!

미래는 믿지 말라! 아무리 즐거울 상 싫어도

가버린 과거는 가버린대로 묻어버리려르나

활동하라! 이승쉬는 현재에서

마음속엔 심장이. 머리 위엔 신이 있도다.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는 한결 같이 우리들에게

생각케 하도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숭고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 떠날 땐 우리들 뒤에

시간이라는 모래밭 위에 발자국 남길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엄숙한 대해를 향해 하다가

난파 당한 절망의 형제가 어찌면 그것을 보고

다시금 용기를 얻을 그러한 발자국들

그럼 우리 박차고 일어나서 일하자꾸나

그어떤 운명과도 맞부딪칠 심장지니고

자꾸 이룩하고 자꾸 추구하면서

노력하며 기다리길 배우자꾸나.

— 롱펠로우 —

